

사랑의 보일러교실 졸업식 및 개강식



서울 똑섬부지 매각으로 폐교위기에 처했던 '사랑의 보일러 교실'이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지부로 재탄생해 졸업식과 입학식을 함께 진행해 눈길을 모았다.

사랑의 보일러교실(이영수 명장)은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 소재 사랑의 보일러교실에서 졸업생과 교육생 그리고 가족과 친지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기 졸업식과 17기 개강식을 진행했다.

이영수 명장은 격려사에서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매일 저녁 3시간씩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 이처럼 졸업이라는 영광스런 자리에 올랐다."며 "이곳에서 익힌 기술을 용이하게 활용해 훌륭한 일꾼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입학생들에게도 "새로이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기능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졸업식에는 여성 졸업생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졸업생 최화영(59세 여)씨는 어려운 살림가운데 설비업을 하는 남편을 도우려다보니 설비기술에 대해 모르

는 부분이 많아 사랑의 보일러교실 입학했다고.

최씨는 "6개월동안 사랑의 보일러 교실을 통해 설비기술을 습득하고 봉사활동도 함께 펼치는 동안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추억에 남을 만한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졸업식과 입학식에서는 꽃다발 대신 쌀을 받아서 인근 노숙자에게 무료급식을 시행중인 강북교회에 기증하기도 해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사랑의 보일러교실은 지난 1999년 2월 문을 열어 한국 최초의 보일러 시공 명장인 이영수씨가 사재를 털어 실직자들에게 보일러 시공기술을 전수하는 국내 유일의 무료 교습소다. 강의로 대신 재학생들은 6개월동안 50시간의 보일러 수리 사회봉사를 해야하는거것이 '교칙'으로 현재 강의는 이영수 명장과 동서대학교 전자공학과 유재문 교수, 졸업생들이 자원봉사를 맡고 있다.

한때 교습소 유지비용 및 똑섬부지 매각등의 어려움등으로 존폐위기에 시달리기도 했던 이 사랑의 보일러 교실은 지난해 4월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지부로 재탄생하기도 했다.